"영산강 주오염원 지천 정비해달라"

나주시의회 건의문 발의… 청와대·국회 등에 보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 생태하천으로 복원 촉구

나주시의회가 영산강의 주 오염원인 지천(支川)의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영산강 지천 정비사업 추진 건의문'을 14명 의원 전원이 발의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보냈다.〈사진〉

나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8일 영산강 죽산보가 준공돼 위용을 드러내고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채 흐르고 있는 본류 수질개선을 위해 빠른 주변 지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주목적은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수자원확보, 이를 통한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빠른 사업추진을 건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나주시 구간의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지방하천 28

개소(173km)와 샛강의 소하천 150개소(209km)를 조속히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장행준 의원은 "영산강권 지천 살리기 당위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알리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지천 정비사업은 당초 4대강 사업에 꼭 포함됐어야 했던 지천 정비사업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국립공원 월출산 사무소

희귀식물 끈끈이주걱 증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소장 정장훈)는 최근 습지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인 '끈끈이주걱'을 자체 증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월출산사무소는 공원내 내륙습지인 도갑습지 생태계 회복을 위해 ▲2008년 도갑습지 정밀조사 ▲2009년 도갑습지 모니터링에 이어 지난해부터 '끈끈이주걱' 인공 증식사업을 추진해왔다.

월출산사무소는 지난 4월 사무소 내에 묘포장을 설치하고 '끈끈이주걱' 자체 증식실험을 실시, 현재까지 100여 개체를 증식했다.

정장훈 소장은 "국립공원내 희귀 습지식물 보전을 위해 습지 환경 모니터링과 종 복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축산농가의 겨울준비

강진군 강진읍 들판에서 볏짚 사일리지 작업이 한창이다. 볏짚 사일리지 1개(무게 500kg)는 소 50마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축산농가들의 겨울준비 필수품목이다. 〈강진군 제공〉

애기 단풍보고, 숲속 체험하고…

장성 백양단풍축제 내달 4일 개막

아름다운 오색 애기단풍의 향연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백양단풍축제가 다음달 초에 열린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장성 백양단풍축제'가 '사람과 자연의 공감!'이라는 슬로건으로 11월 4~5일 이틀간 국립공원 백암산과 백양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단풍축제는 지난해와 같이 관 주도의 축제를 탈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북하면 번영회가 주최하며, 소모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인 축제로 진행된다.

이에 개막행사와 주무대 공연을 없애고, 간단한 개막선언과 함께 백암산 단풍 등반대회를 시작으로 단풍숲 7080공연과 품바·퓨전난타, 통기타, 금관 앙상블 공연 등이 일광정 주변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축제장 곳곳에서는 애기단풍 페이스 페인팅, 단풍 엽서전, 단풍잎 모자이크, 국립공원 숲속체험 등 단풍과 관련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품 홍보와 판매도 예정돼 있다.

단체는 축제에 단풍을 즐기려는 외부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에 중점을 두는 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한국 말산업高 문 연다

장흥 대덕읍에 내년 3월 개교… 신입생 52명 모집

내년 3월에 말(馬)산업 특성화고가 장흥에 문을 연다.

장흥군은 "2012년 3월에 장흥군 대덕읍에 공립 '한국말(馬)산업고등학교'가 개교해 2개 학급 52명의 신입생을 맞이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과정으로는 승마지도사를 포함한 말(馬)장재사, 마필관리사, 재활승마사, 말(馬)사육사, 말(馬)번식사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편성해 말(馬) 사육법과 승마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장흥 대덕지역은 고려때 제주에서 뭍으로 옮겨온 말(馬)이 강진 마량항에 입항후 이곳에서 적응기간을 가졌던 마방이 설치되었던 지역으로 기후가 온난해 겨울에도 풀이 자라 말성장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승마와 골프, 요트산업 등 레저스포츠가 각광받는다"며 "말(馬)산업 고를 개교해 새로운 교육의 장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1-867-1801)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치안서비스 만전

장성경찰 현장 간담회

장성경찰서는 9월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현장근무자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지역경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윤 서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읍내 파출소를 시작으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추석절 특별 방범활동 기간중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지역경찰에 대해 노고를 치하했다.

이윤 서장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찰활동으로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소싸움·문화제…27일부터 정읍 가을축제

정읍에서 다채로운 가을축제가 펼쳐진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사 문화제(28~30일)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27~31일) ▲평생학습 축제(29~30일)가 열린다.

'정읍사 문화제'는 행상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를 소재로 28일부터 사흘간 내장산문화광장 등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8일 저녁 시민 2000여명이 고적대, 농악대와 함께 시내를 도는 퍼레이드와 불꽃쇼, 전야제가 열린다. 29일에는 신정동 정해마을에서 채수의례를 시작으로 정읍사 여인제례, 시민의날 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문화 · 민속공연가 준비된다.

'제15회 정읍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는 27~31일 열려 120마리의 싸움소가 체중에 따라 세 체급으로 나눠 토너먼트 경기를 벌인다. 최고급 한우고기를 맛보는 한우축산축제, 쇠고기 판매, '단풍미인 한우' 평가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한 '제6회 정읍 평생학습 축제'는 29~30일 이틀간 '배움으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정읍'을 주제로 열린다.

27개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해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무대공연, 성인 백일장, 국악공연 등을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군산시의회 현대重에 동반성장 촉구

각종 행정·세제지원 불구 정규직 채용은 고작 48명

소모성 자재 울산서 조달 … 지역 상품으로 대체해야

군산시의회가 군산에서 조선소와 풍력발전 공장을 운영하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동반성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지역경제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현대중공업의 유치를 위해 각종 행정지원은 물론이고 세제혜택,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했지만, 유치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산시와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산을 대표하는 기업의 미비한 고용 효과와 미흡한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당초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이 유치되면 50여개 협력사와 1만1000여명의 신규고용 등 총 3만5000여명의 인구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공장이 들어선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규직 채용은 48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희망을 품었던 수 천명의 현대중공업 기술연수생들은 대부분 중도 포기를 한 상태이고, 소수 연수생만이 아직도 정규직의 꿈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군산지역 대기업이 소모성 자재와 사무용품 등을 본사에서 조달해 지역 영세업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면서 "울산에서 공급되는 소모성 자재와 사무용품을 군산 지역상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군산시 역시 실적 위주의 전시성 기업유치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의 건의문 채택 이후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외면하는 기업에 자극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팽팽한 상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道 자문·심의위원회 유명무실

33% 회의 소집 전무

전북도의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가운데 33%(30개)가 올해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아 이들 기구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실 · 국이 주관하는 위원회는 가축방역협의와 건축위원회 등 총 90개(위원 1500여명)에 달한다.

특히 경기 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 농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급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제개혁위원회,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는 3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절반 가량의 위원회는 연간 1~2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쳐 실제 제 역할을 한 위원회는 20% 정도다.

이처럼 상당수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 것은 관련 부서가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적이 없거나 활동이 미미한 각종 위원회는 조례 등을 개정해 정리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시-국립종자원

종자산업 업무 협약

지난 4월 '국립 민간 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한 김제시와 국립 종자원(원장 김창현)이 최근 국내 종자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농업의 근간이 되고 미래에 무한한 가치를 가진 종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울긋불긋 덕유산 구천동 계곡

국립공원 덕유산 구천동 계곡이 울긋불긋 붉게 물들었다. 16일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탐방센터에서 백련사로 이어지는 7km 구간의 계곡에는 곱게 물든 단풍을 보려는 탐방객으로 북적거렸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국악대중화 …전주 국악방송국 27일 개국

전주 국악방송국이 27일 첫 전파를 쏜다.

전주 국악방송의 주파수는 FM 95.3MHz며, 가청취권은 전주와 익산, 김제, 군산, 완주지역이다.

방송국은 11억원이 투입돼 전주시 한옥마을의 전통술박물관 인근 330여㎡ 부지에 한옥 형태로 세워졌다. 중계소 역할을 주로 하지만 140㎡ 규모의 스튜디오 2개와 조정실, 편집실을 갖추고 자체 제작도 한다.

일단 개국과 함께 정회천 전북대 교수의 국악 이야기 프로그램인 '솔바람 물소리'를 직접 제작해 방송하며, 내년부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문화유적 한눈에… UCC 홍보 시스템 구축

김제시는 지역 농경문화와 문화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UCC 홍보 시스템을 모악산 도립공원내 홍보관과 관광안내소에 설치했다.

이번 구축된 홍보시스템은 3차원 위치기반과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유서깊은 관광명소와 문화행사 등을 알 수 있다.

또 사용자가 포토메일 바탕화면에 모악산의 관광명소와 가상배경 이미지를 이용한 동영상 UCC 화면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 내달부터 본격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읍시가 11월부터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완료와 최종점검을 마치고 37개 공동 주택단지 1만6000여 세대 및 971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 간다. 이에 앞서 시는 15~16일 롯데마트와 연지동 하나로마트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시골지역을 제외한 시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연장 운영

순창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다음달 30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연장 운영한다. 군은 지난 6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4개월 동안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및 (사)전국 수렵인참여연대 회원 중 모범 엽사 추천을 받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명을 구성 운영해 왔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